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섭리역사 40년의 사연들>을 보아라. <하나님의 지난날>을 기억 하여라. 잊지 말아라.
2. <지난날 섭리역사 40년>은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 였다. 지난날을 생각하면 어려움이 많고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뜻’ 을 이루며 살았으니 기쁨도 보람도 많았다.
3.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 파도가 드높을수록, 섭리사에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수록, 하나님과 성자는 더욱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함께하시며 “더욱 굳건하여라. 담대하여라. 내가 있으니 걱정 말아라. 당할 것은 당하고, 얻을 것은 얻는 것이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여라. 너희 선조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성서를 통해서 보고 차분하게 하자.” 하셨다. 그리함으로 어려움을 담대히 물리치게 하시고, 그날그날 할 일들을 하게 하시며 구원할 자들을 이끌어 오셨다.시대 하나님이 택한 생명들을 안 뺏기는 일이 목적이니, 그것을 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왔다.
4. 어느 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서 갈 곳이 없으니, 홀로 울며 기도하던 때가 있었다. 선생이 독일에 있을 때 한번은 보고가 오기를, <섭리사를 악평하는 자들>이 섭리사를 막으려고 계획적으로 행하니, 이를 두고 꼭 기도를 해 달라고 했다. 그날은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날이었지만 어디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를 았았다. 게다가 그날 눈까지 와서 더 이상 갈 수도 없었다. 고로 실 가닥 같은 길마저 막혀서 찬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밤

을 새워 기도했다. 기도하고 새벽에 보니, 마룻바닥에 엄지손가락만 한 큰 벌들이 나를 쏘려고 기어 오고 있었다. 벌들을 죽이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쏘니, 구둣발로 그 벌들을 계속 죽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구둣발>은 ‘말씀’, 그리고 <큰 벌들>은 ‘인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고로 하나님께 고하기를, ‘복음의 신발’로 이같이 인사탄들을 멸해 달라고 했다. 기도하고서 후에 전화가 오기를, 섭리사를 계획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자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직위를 버리고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다고 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억울하게 해 버린 것이다.

5. <전쟁 났을 때>도 그 상황을 전방의 군인들이나 세밀히 알지, 국민들은 직접 겪지 않으니 다 모른다. 이같이 <섭리사>도 그러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이 되는 사건들이 차고 넘쳤다. <직접 겪은 자들>만 현실에서 부딪히며 눈물겨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나님은 최고 극적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펴 오시면서 결국 이기게 하셨다.
6. <섭리사를 나간 자들>을 보면, 하나님과 주가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셨는데도 하나님과 주를 사랑하며 살지 못함으로 인해 세상으로 나가 버렸다.
7. 지난날 애굽 같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이끌어 내신 것을 생각하며, 이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모르면, 가치를 상실하고 보람도 없고, 결국 힘들어서 못 견디고 떠나가게 된다.

8. <섭리사를 나간 자들> 중에는 섭리사 안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다 나간 자들도 있다. <자기와 같이 일하는 자>를 책망하고 말의 채찍질을 하니, 이를 못 견디고 힘들다고 나간 것이다.
9. <바깥에 있는 적들>도 문제이지만, ‘안에 있는 적들’ 이 문제다. <서로 싸우고 화평하지 못한 일들>이 결국 ‘무서운 적’ 이 되어 문제를 일으켰다. 지금도 그러하다. <바깥의 문제>가 ‘문제’ 가 아니다. <내부>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는 것이 문제다.
10. <섭리사를 나가서 악평하는 자들>도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낸 것이다.
11. 늘 화평하고, 사랑을 중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12. 하나님을 제대로 100% 안 믿으면 ‘믿음의 병’ 이 들고, 말씀을 들었어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행실의 병’ 이 든다. 그리고 마음을 제대로 못 먹고 생각을 제대로 못 하면,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이 든다.
13. 항상 보면, ‘자기 문제’ 다. <자기 잘못>으로 ‘지옥’ 에도 가고, 자기가 생각을 잘해서 ‘천국’ 에도 간다. 이를 깨닫고 ‘자기 병’ 을 발견하여라. <영적인 병>도, <육적인 병>도 꼭 발견해야 된다.

14. <신앙적>으로 더러우면 ‘신앙의 병’ 이 오고, <육적>으로 더러우면 ‘육적인 병’ 이 온다.
15. <신부들>은 항상 깨끗해야 된다. <신부들>은 ‘깨끗한 것’ 이 권세이며, 복이며, 능력이다.
16. 많은 것을 겪고, 닦을 것을 닦으며, 최고 극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휴거’ 를 알았다. <시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휴거 역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망연하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다. 결국 2009년부터 3년 동안은 시대 십자가를 저 주면서 시대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고, 2012년도부터 3년 동안은 섭리사 자체에서 할 일들을 하며 회개하게 하고, 신부로서 깨끗하게 했다. 이때는 <신부로서 깨끗하게 만드는 기간>이었다. 그러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가 휴거 3일 전에 “성자가 승천한다.” 라고 가르쳐 줬다. <승천> 하면, ‘휴거’ 인데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결국 부활절 행사 때 다시금 알고 모두 모여서 ‘휴거 역사’ 를 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도적같이 오셔서 할 일을 다 해 주셨다.
17. 하나님은 <시대 메시아가 태어난 날, 그를 보낸 날>을 ‘성자가 가는 날’ 로 삼으셨다. 성경에 “도적같이 오리라.” 한 그 날이었다. 미리 알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 은밀히 돌려서 “승천한다.” 하고 이야기한 것이다.

18. <휴거 날>은 ‘결혼해서 사랑하는 날’ 과 같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 하나님은 결국 맨 마지막에 ‘최고 하나님의 뜻, 창조 목적’ 을 ‘휴거’ 로 이루셨다. 그리고 <최고 이상적인 세계, 황금 천국>을 주셨다.
19. 가령 비싼 것을 줄 때는 요리조리 땀을 들이고, 보통으로 조건을 세워서는 주지를 않는다. <성자가 준 것들>은 너무 비싸서 말을 못 한다. 영계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니, “생각을 해 보아라. 가치를 결정해 보자. 6000년 역사가 끝나고 성자가 기념으로 줬으니, 그것이 얼마나 비싸겠느냐. 나 여호와와 성자, 성령이 지구촌에 ‘딱 하나’ 준 기념물이다. 10억, 100억, 1000억, 1조, 2조로 결정되겠느냐? 이는 값을 따질 수 없다. 고로 귀하게 여겨라.” 하고 말씀하셨다.하나님이 마지막 6000년 역사를 하시고 ‘휴거 역사를 이룬 신부들에게 주시는 것들’ 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다.
20. 2015년 3월 16일, 휴거 이후 3년이 되는 때인 2018년, 곧 섭리역사 40주년이 되는 이때까지가 <결혼해서 1차로 사는 기간>이다.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 기르듯이, 이때는 휴거 이후 생명을 낳아 기르는 기간이다. <가장 사랑이 불타는 기간>이 바로 이때다.
21. <전도>는 ‘하는 사람’ 만 그 낙을 누린다.
22. <전도하는 것>은 마치 ‘금을 캐는 것’ 과 같고,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 과 같다.

23. 지난 10년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 2009년부터 3년 기간>은 주가 대신하여 시대 죄를 깨끗이 하려 십자가를 져 주는 기간이었고, <두 번째, 2012년부터 약 3년의 기간>은 시대를 따르는 자들이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고 신부로 만드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2015년 3월 16일 휴거 이후 3년의 기간>은 ‘결혼해서 같이 사는 기간’으로서, 지금 이때를 보내고 있다.
24. 결혼을 했으면 집을 사서 같이 살아야 되니, <주>는 이를 알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고로 결혼하고 집을 장만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광야, 허허벌판을 벗어나 ‘멋있는 세계, 가나안 복지’를 만들었듯이, 섭리사도 그러했다. 하나님은 혼인 잔치 시대에 하나님의 신부들이 거할 집, 성전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셨다.
25. 지난 섭리역사 40년 동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것을 생각하며 행하여라. 지난날을 생각하면, ‘표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역사였음을 깨닫고, 신부로서 더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섭리사 전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